

# 중학교 남학생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지혜<sup>1</sup>, 김근영<sup>2\*</sup>

<sup>1</sup>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Excessive YouTube Usage of Middle School Boy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ihye Jung<sup>1</sup>, Geunyoung Kim<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의 유튜브 이용실태와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그들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도, 유튜브 중독정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편이었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모두에 있어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의 지지가 비행과 공격행동 모두에 있어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부모 및 친구의 지지는 오직 비행행동에 대해서만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 중독을 조절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부모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다른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중독이 높은 경우에는 보호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튜브중독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much Korea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used YouTube to determine if the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might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YouTube overuse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ree hundred and twenty 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asking about their YouTube use, levels of YouTube addicti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and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YouTube addi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Parent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YouTube addic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s' or friends' supports were not significant. In contrast, teachers' support was the most crucial moderating factor regarding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parental and friends' supports were only related to delinquency but not to agg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ole of parental or teacher supports should be unique depending on the types of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support were not found in the highly addicted group, suggesting that the early prevention of YouTube overuse is a crucial intervention.

**Keywords :** YouTube addiction,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Social support., Adolescent

본 논문은 정지혜의 서강대학교 석사논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Geunyoung Kim(Sogang Univ.)

email: [king@sogang.ac.kr](mailto:king@sogang.ac.kr)

Received January 7, 2021

Accepted February 5, 2021

Revised January 29,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 1. 서론

Z세대란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Y세대 및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현재 청소년을 지칭하는 새로운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 IT 기술에 익숙하고 신기술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10대는 유튜브로 읽는다'는 말처럼, 유튜브(YouTube)는 현재 Z세대의 일상을 점령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유저 자신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전 세계 8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현지화 된 버전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수억 시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1]. 2020년 10월 8일자 KBS뉴스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유튜브를 사용한 우리나라 국민은 약 4천319만 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8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미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앱으로, 월 평균 20.5시간을 사용하여 2위인 카카오톡(12시간)이나 3위인 페이스북(11.7시간) 사용시간보다 월등히 길다. 또한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 가장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대 남자 청소년으로, 이들은 한달 평균 48.1시간을 사용하여 전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시간을 유튜브 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 문제와 연관지어 학계의 관심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발달상의 미성숙에 따른 정서적 혼란과 정신건강의 위협 요인이 많다[2]. 실제로 청소년기 매체중독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은 성인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3].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과도한 매체 사용과 심리적, 행동적 문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된 관계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체로의 결론은 과도한 인터넷 매체이용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적응지표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미래에 우울증상이나 외로움 등의 내재화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4]. 또 인터넷 과사용 청소년들은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증상 역시 높은 경향이 있으며[5], 가족기능이나 자아존중감등의 심리적 변인과는 부적인 관련성을 보인다[6].

하지만 이러한 일관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겠지만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인터넷 문제행동에 비해서는 연구의 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과도한 인터넷 이용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겠지만 결코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는 특히 현재까지 대체적인 인터넷 매체중독 연구가 소위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유저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앱이 아니며, 오히려 동영상 공유와 관람이 목적인 플랫폼이다[7]. 따라서 과도한 SNS사용자와 과도한 유튜브 사용자는 다른 심리적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과다 사용의 악영향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8]. 즉, 유튜브 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개입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기존의 일반적인 매체중독 연구 결과를 단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 이용에 특화된 연구들을 보다 축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앱 사용자들은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인터넷 앱을 사용하며, 심지어 같은 소셜미디어라 하더라도 어떤 앱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 유저의 심리적 특징이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9].

그와 동시에, 유튜브 과다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조절하거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족 변인, 성격적 변인, 그리고 사회적 변인 등 많은 요인들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의 악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그에 따른 악영향을 보호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10-12]. 다만 이러한 조절 변인의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플랫폼, 구체적인 연령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지인가에 따라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과사용에 있어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그리고 또래의 지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은 위배될 가능성이 높는데,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는 지지제공자에 따라 예상외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예로 약물사용과 같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의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친구의 지지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예측한다[13]. 내재화 장애에 있어서도 다른 효과가 발견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낮은 수준의 부모 지지는 자녀의 미래의 우울감을 예측하지만, 낮은 수준의 친구의 지지는 오히려 현재의 우울증상의 결과로서 미래에 예측된다 [14]. 즉, 유튜브의 과도한 사용의 효과를 단순히 인터넷 과다사용의 결과로 대체할 수 없듯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역시도 하나의 효과를 이용하여 다른 효과를 적절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며,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의 과도한 사용은 분명 청소년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제는 미래에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유튜브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악영향을 조절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각각의 사회적 지지원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독특한 영향력을 보일 것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가설로, 과도한 유튜브 이용은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각 사회적 지지원은 유튜브 과사용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2. 방법

###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2019년 하반기 S지역에 있는 남자 중학교 2곳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연구자와 동료교사 3명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고,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 방법, 응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32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한 페이지 이상의 응답을 누락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1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학년은 1학년 86명(27.5%), 2학년 122명(39%), 3학년 105명(33.5%)이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유튜브 이용동기 및 이용빈도

유튜브 이용빈도와 동기 등의 기술적 자료를 얻기 위해 오대영[1]이 제작한 17개의 유튜브 이용동기 측정 척도 중 요인분석 결과 배제된 2개 변인을 제외한 15개의 측정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재미추구, 관계추구, 정보추구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방식으로 측정한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재미추구 동기가 .82, 관계추구 동기가 .86, 정보추구 동기가 .69로 나타났다.

### 2.2.1 과도한 유튜브 이용

과도한 유튜브 이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게임중독척도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권정혜[15]의 척도를 응용하였다. 유튜브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르가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이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여기에서 '인터넷 게임'이란 단어를 '유튜브'로 대체하여 유튜브 중독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5점 Likert 방식이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2.2.2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남자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YSR)[16] 중 문제행동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하위척도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내재화 문제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그리고 외현화 문제는 비행과 공격행동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55문항의 3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내재화 문제가 .92, 외현화 문제는 .89였다.

### 2.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Noltten[17]이 개발한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의 국내판이었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친구지지의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방식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부모지지 .89, 교사지지 .88, 친구지지 .76이었다.

### 2.3 분석

기술통계치는 평균 및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중독과 사회적 지지의 원점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으며,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에는 평균중심화 된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

## 3. 결과

### 3.1 유튜브 이용현황 기술통계

대상자들의 유튜브 이용 현황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Participants' Youtube Watching Patterns

Questions		No.	%
Watching Frequency	Almost none	6	1.9
	1-2 times per month	1	0.3
	1-3 times per week	14	4.5
	4-6 times per week	48	15.3
	<b>Almost everyday</b>	<b>244</b>	<b>78.0</b>
Watching time during weekdays	Under 1 hour	97	31.0
	<b>1 -3 hours</b>	<b>121</b>	<b>38.7</b>
	3 -5hours	79	25.2
	5 -10 hours	10	3.2
	Over 10 hours	6	1.9
Watching time during weekends	Under 1 hour	61	19.5
	1 -3 hours	82	26.2
	<b>3 -5 hours</b>	<b>122</b>	<b>39.0</b>
	5 -10 hours	31	9.9
	Over 10 hours	17	5.4
Frequently Used Channels	<b>Game</b>	<b>216</b>	<b>69.0</b>
	Beuty/Fashion	3	1.0
	Food/Cooking	5	1.6
	Music	22	7.0
	V-Log	16	5.1
	Education/Information	6	1.9
	Sports	25	8.0
	Others	19	6.1
Attitude duirng Youtube Watching	Do not focus	25	8.0
	Just listen to sounds	20	6.4
	<b>Focus on watching</b>	<b>198</b>	<b>63.3</b>
	Focus and Leave messages	58	18.5
	Focus, Leave Messages, and Upload movies	9	2.5

조사 결과 연구참가자들인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78%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 달에 1~2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튜브에 관심이 없는 대상자는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의 주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22분, 그리고 주말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는데,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유튜브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즉, 97.8%의 대상자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학생들이 주말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유튜브 이용 태도는 집중하여 시청한다가 63.3%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이용 장르는 게임방송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1 변인간 상관관계

중학교 남학생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과 본 연구의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간의 상관관계이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YouTube Overuse, Social Supports, and Problem Behaviors.

	Corr. You-Tube	Corr. Parent	Corr. Teacher	Corr. Friend
Internalizing Problems				
Social Withdrawal	.23**	-.22**	-.15**	-.34**
Somatic Complaints	.15**	-.12*	-.06	-.14*
Depression	.29**	-.20**	-.15**	-.22**
Externalizing problems				
Delinquency	.28**	-.15**	-.13**	-.12*
Aggression	.29**	-.08	-.04	-.07
Social support				
Parental	-.10	--		
Teacher	-.07	.48**	--	
Friend	-.10	.51**	.53**	--

\* $p < .05$ , \*\* $p < .01$

Table 2에서 드러나듯이, 중학교 남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유튜브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도 대체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외현화 문제의 공격행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3.1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학교 남학생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학교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유튜브 중독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유튜브 중독과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독립변인인 유튜브 중독과 함께 2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Table 3는 유튜브 중독과 내재화 문제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의 베타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대체적으로 부모지지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반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조절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Table 3. Beta Coefficien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Withdraw	Somato	Depress
YouTube (Y)	.23***	.15**	.29***
YouTube (Y) Parental support (P)	.21*** -.19***	.14* -.11	.27*** -.17**
Youtube (Y) Parental support (P) <b>Y×P</b>	.19*** -.21*** <b>.18**</b>	.15** -.10 <b>-.04</b>	.24*** -.19** <b>.17**</b>
<i>F</i>	14.241	3.861	16.781
<i>R</i> <sup>2</sup>	.12	.04	.14
YouTube (Y)	.23***	.15**	.29***
YouTube (Y) Teacher support (T)	.22*** -.14*	.15** -.05	.28*** -.13*
Youtube (Y) Teacher support (T) <b>Y×T</b>	.19*** -.14* <b>.11</b>	.15* -.05 <b>-.01</b>	.25*** -.13* <b>.09</b>
<i>F</i>	9.423	2.777	12.303
<i>R</i> <sup>2</sup>	.08	.03	.11
YouTube (Y)	.23***	.15**	.29***
YouTube (Y) Friend support (F)	.20*** -.32***	.14* -.12*	.27*** -.20***
Youtube (Y) Friend support (F) <b>Y×F</b>	.20*** -.32*** <b>-.03</b>	.15** -.12* <b>-.04</b>	.27*** -.20*** <b>.01</b>
<i>F</i>	19.255	4.296	14.189
<i>R</i> <sup>2</sup>	.16	.04	.12

\**p*<.05, \*\**p*<.01, \*\*\**p*<.001

부모지지의 경우 사회적 위축과 불안/우울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유튜브 중독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2단계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축은 변량의 3% ( $F=14.24, p<.001$ ), 그리고 우울/불안은 2.8% ( $F=18.78, p<.001$ )만큼 설명도가 증가하였다.

부모 지지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지지를 저·중·고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Figure 1는 그 중 사회적 위축의 결과이다 (불안/우울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생략함). Figure 1에서 드러나듯, 유튜브 중독 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일단 유튜브 중독 수준이 고위험군이 되면 부모지지가 높던 낮은 사회적 위축 문제는 심각해짐을 알 수가 있다. 즉, 부모의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중독수준이 최소한 중간 정도는 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 중독이 심해지면 부모의 지지의 보호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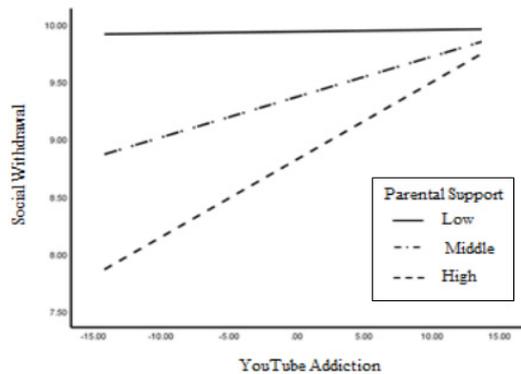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on the Associations of YouTube Addiction on Social Withdrawal

이러한 패턴은 교사 및 친구지지에 있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지지만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먼저 부모지지의 효과를 보면 공격행동에 있어서는 뚜렷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행에 있어서는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Table 4. Beta Coefficien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Externalizing Problems.

	Aggression	Delinquency
YouTube (Y)	.29***	.28***
YouTube (Y) Parental support (P)	.29*** -.05	.27*** -.13*
Youtube (Y) Parental support (P) <b>Y×P</b>	.28*** -.05 <b>.08</b>	.24*** -.14** <b>-.17**</b>
<i>F</i>	10.719	14.177
<i>R</i> <sup>2</sup>	.09	.12
YouTube (Y)	.29***	.28***
YouTube (Y) Teacher support (T)	.29*** -.02	.27*** -.11*
Youtube (Y) Teacher support (T) <b>Y×T</b>	.28** -.01 <b>.12*</b>	.22*** -.11* <b>-.19**</b>
<i>F</i>	11.400	14.285
<i>R</i> <sup>2</sup>	.10	.12
YouTube (Y)	.29***	.28***
YouTube (Y) Friend support (F)	.29*** -.04	.27*** -.09
Youtube (Y) Friend support (F) <b>Y×F</b>	.28*** -.04 <b>-.03</b>	.23*** -.08 <b>-.15**</b>
<i>F</i>	9.9895	12.100
<i>R</i> <sup>2</sup>	.09	.11

\**p*<.05, \*\**p*<.01, \*\*\**p*<.001

조절효과의 패턴 역시 내재화 장애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즉, 부모지지 저 집단은 유튜브 중독 수준이 낮더라도 비행 수준이 고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유튜브 중독 수준이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까지는 부모지지 고 집단의 비행 수준이 저집단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유튜브 중독 수준이 고 위험군에 도달했을 때에는 부모지지와 무관하게 비행수준이 높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내재화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부모지지와 비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유튜브 사용빈도가 중간에서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의 경우 비행과 공격행동 모두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조절효과의 패턴 역시 부모의 조절효과와 유사하였으며, 교사지지의 효과는 유튜브 중독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의 집단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Figure 2은 공격행동에 있어 교사의 지지의 조절효과를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지지의 효과를 보면 조절효과는 오직 비행에서만 발견되었으며, 교사지지와 마찬가지로 친구지지의 효과 역시 유튜브 중독수준이 낮거나 중간수준에서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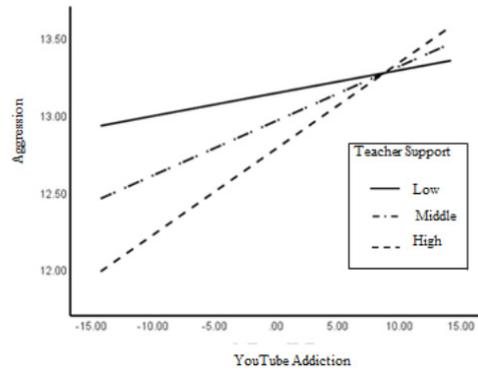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Support on the Associations of YouTube Addiction on Aggression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유튜브 중독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련성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부모의 지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외현화 문제의 경우 부모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지지가 가장 설명력 있는 조절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유튜브 중독이 낮거나 중간 수준의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으며, 과도한 유튜브 사용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는 크지 않았다.

#### 4. 결론 및 논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소셜네트워크 중독과 청소년기 적응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특정 매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나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조절변인의 효과 역시도 별다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들의 78%가 거의 매일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가는 주중에는 하루 평균 2시간 22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는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이용하였다. 또 유튜브 이용태도는 집중하여 시청하다가 63.3%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싫어요를 클릭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이용하는 경우는 18.5%

영상 시청 뿐 아니라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18]와 유사한 수치로, 청소년들이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초결과는 한정된 표본 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참가자들이 평균적인 한국 중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과도한 유튜브 이용은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반면, 유튜브 중독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매체중독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하지 않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의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지지원이 누구냐에 따라 다소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먼저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지지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불안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였지만,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반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오히려 교사지지가 공격행동과 비행 모두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였고,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비행 문제에서만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지지는 특히 내재화 문제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교사지지는 외현화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친구지지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나 비행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있어 특히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의 역할이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에 있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가능성은 기존 연구에 의해서도 종종 제시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부모와는 다르게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의 발견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도 있으며[19],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라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20]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본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부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표본 연구가 그러하겠지만, 본 연구 역시 특정 지역의 일부 남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설문지라는 단일한 방식을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 성, 다른 보고자에게 적용시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정상집단에 포함된 청소년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수준의 평균이 낮은 편이고, 유튜브 중독 수준의 저·중고 집단의 비율이 비슷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집단은 임상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집단도 아니었으며, 심각한 중독수준에 이른 청소년도 비율 상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병리적인 과의존 집단에서의 행동 패턴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극단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 유튜브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매일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유튜브 중독에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재적 위험수준에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이미 고위험수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유튜브 이용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다른 매체중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은 그들의 적응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유튜브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유튜브 과의존 현상도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셋째, 본 연구에 의하면 유튜브 중독 수준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더라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조절효과와는 다른 해석을 요한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 주변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 등)의 지지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은 명백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도 높은 유튜브 중독 수준에서는 보호기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튜브 관련 초기 개입프로그램이 조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보다

는 예방에 초점을 기울인 조기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의 매체관련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할 경우 부모교육과 교사 교육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문제행동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는 위와 같은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청소년의 올바른 유튜브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D. Oh, "Effects of Demographic Features, Use Motives and Personality of Audience on Usage of YouTube", *J. Communication Sci.*, 12, pp.122-162, 2017.  
DOI: <http://dx.doi.org/10.14696/jcs.2017.12.17.4.122>
- [2] L. Crockett, A. Crouter,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Individu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Social Contexts", Psychology Press, USA, pp.1-12, 1995.
- [3] M. Dimonte, G. Ricchiuto, "Mobile Phone and Young People: A Survey Pilot Study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a New Social Phenomenon", *Minerva Pediatrica*, 58, pp.357-363, 2006.
- [4] M. Lapierre, P. Zhao, B. Custer, "Short-Term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Use/Depend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ate Adolescents", *J. Adolescent Health*, 65, pp.607-612, 2019.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9.06.001>
- [5] H. Odaci, C. Çelik, "Who Are Problematic Internet Users?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ions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Shyness, Loneliness, Narcissism, Aggression and Self-Percep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pp.2382-2387, 2013.  
DOI: <https://doi.org/10.1016/j.chb.2013.05.026>
- [6] X. Shi, J. Wang, H. Zou, "Family Functioning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6, pp.201-210, 2017.  
DOI: <https://doi.org/10.1016/j.chb.2017.07.028>
- [7] M. Khan, "Social Media Engagement: What Motivates User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on YouTub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6, pp.236-247, 2017.  
DOI: <https://doi.org/10.1016/j.chb.2016.09.024>
- [8] P. de Berail, M. Guillon, C. Bungener, "The Relations Between YouTube Addiction, Social Anxiety and Parasocial Relationships with YouTubers: A Moderated-Mediation Model Based on a Cognitive-Behavioral Framewor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9, pp.190-204,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b.2019.05.007>
- [9] S. Alhabash, M. Ma, "A Tale of Four Platforms: Motivations and Uses of Facebook, Twitter, Instagram, and Snapchat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Media + Society*, pp.1-13, 2017.  
DOI: <http://dx.doi.org/10.1177/2056305117691544>
- [10] P. Wang, L. Lei, X. Wang, J. Nie, X. Chu, S. Jin, "The Exacerb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Role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0, pp.129-134, 2018.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4.009>
- [11] J. Park, S. Park, M. Park,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 pp.218-229,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18>
- [12] R. Zhang, B. Bai, S. Jiang, S. Yang, Q. Zhou, "Parenting Styles and Internet Addiction in Chinese Adolescents: Conscientiousness as a Mediator and Teacher Support as a Moderato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1, pp.144-150,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b.2019.07.019>
- [13] T. A. Wills, J. A. Resko, M. G. Ainette, D. Mendoza, "Role of Parent Support and Peer Support in Adolescent Substance Use: A Test of Mediated Effec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 pp.122-134, 2004.  
DOI: <https://doi.org/10.1037/0893-164X.18.2.122>
- [14] E. Stice, J. Ragan, P. Randall,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Differential Direction of Effects for Parent and Peer Support?", *J. Abnormal Psychology*, 113, pp.155-159, 2004.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13.1.155>
- [15] J. Kw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of Adolescents: Temporal Changes and 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Korean J. Clinical Psychology*, 24, pp.267-280, 2005.
- [16] K. Oh, E. Ha, H. Lee, K. Hong, "Korean-Youth Self Report (K-YSR)", Jungang Aptitude Research Center, Seoul, Korea. 2001.
- [17] P. W. Nolt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
- [18] J. Lee, G. Kim "Children's YouTube Watching Behaviors and Their Adjustments: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Self 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J. Korea Academia-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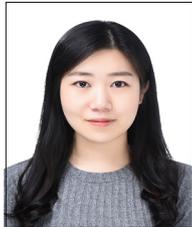
cooperation Society, 20, pp.699-70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LS.2019.20.12.699>

- [19] M. Pearcy, J. Clopton, A. Pope, "Influences on Teacher Referral of Children to Mental Health Services: Gender, Severity, and Internalizing Versus Externalizing Problems", *J.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1, pp.165-169. 1993.  
DOI:<https://doi.org/10.1177/106342669300100304>
- [20] B. Meehan, J. Hughes, T. Cavell,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s Compensatory Resources for Agg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pp.1145-1157, 2003.  
DOI:<https://doi.org/10.1111/1467-8624.00598>
- 

정 지 혜(Jihye Jung)

[정회원]



- 2012년 2월 : 상명대학교 공업화학, 수학교육 (공학사, 이학사)
- 2020년 2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육학 석사)

<관심분야>

청소년 발달, 청소년 상담, 아동심리학

---

김 근 영(Geunyoung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6년 5월 : Vanderbilt University,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Ph.D.)
- 2007년 3월 ~ 2011년 8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부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학, 사회인지 발달, 아동심리학